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위대한 김정은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96호 【루게 제24974호】 주제104(2015)년 7월 15일 (수요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제43차 대사회외의 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제43차 대사회외의 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리수용동지, 김계관동지를 비롯한 외무성 일군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모시고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는 크나큰 영광을 지닌 참가자들은 끝없는 감격과 환희에 넘쳐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촬영장에

나오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온 나라 전체 인민이 혁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주기 위한 총공격을 힘있게 벌려나가고 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몸소 대사회외를 마련해주시고 우리 당의 대외전략적 구상과 의도를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과업과 방도들을 밝혀주시며 회의참가자들에게 거듭거듭 뜨거운 사랑과 전투적 고무를 안겨주시었으며 오늘날 대를 두고 길이 전할 영광의 기념사진까지 찍어 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러 폭풍

같은 《만세!》의 환호를 더쳐올리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열광의 환호에 답례하시며 참가자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보내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제43차 대사회외가 잘되었다고 높이 평가하시면서 이번 회의는 대사회들이 우리 당의 대외정책으로 재무장하고 그 관철을 위한 방법론을 토의하는 좋은 계기로 되었다고 하시며 회의를 성과적으로 진행한 참가자들을 축하하시었다.

기념촬영이 끝나자 또다시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올랐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대사회외의 참가자들과 대외사업부문 일군들이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받들고 우리 당의 대외정책을 철저히 관철하여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과 조국통일에 유리한 대외적환경을 마련하는데 적극 기여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시었다.

참가자들은 선군혁명명도의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귀중한 시간을 내시어

자기들을 만나 뜻깊은 교류협력해주시고 헌없는 사랑과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대한 고마움에 격정을 누르지 못하면서 당중앙의 해외과제 판, 존엄높은 우리 공화국의 외교전위로서의 숭고한 사명감을 심장깊이 간직하고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외교활동을 더욱 진공적으로 배설있게 벌려 대외사업에서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갈 불타는 맹세를 다지었다.

본사정치보도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여러 나라에서 단행본으로 출판, 발행식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이시다》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발행식이 8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국위원회에서 진행되었다.

발행식장정면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이 모셔져있었다.

발행식에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민주평화-조선친선 및 편대성협회의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국위원회 위원장 양대 로해엘베 갈판다는 발행식에서 다음과 같

이 연설하였다.

로작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이시다》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탄생 100돐에 즈음하여 발표하신 역사적인 문헌이다. 우리는 로작의 제목을 통하여서도 위대한 김일성주석을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받들어 모시려는 조선인민의 의지를 알 수 있다.

20세기를 빛 내신 김일성주석을 인류의 태양으로 높이 모시는것은 세계 진보적인 민들의 가장 신성한 의무로 된다.

김일성주석께서는 한평생 학위와 억압이 없고 인민이 주인으로 된 사회주의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시었다.

김일성주석께서는 비록 서거하시였으나 그이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은 오늘날 자주성을 지향하는 진보적인류의 지도사상 태양상이 모셔져있었다.

주체사상연구 원관드전국위원회 위원장 유하 끼에씨는 연설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우리 당의 영원한 총비서로 높이 모시고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가자》를 에스빠냐 안테르 출판사에서 최근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앞날의 강성조선을 떠받드는 기둥이 되라》를 주체사상연구 원관드전국위원회

조선로동당창건 70돐, 조선해방 70돐경축 준비위원회 여러 나라에서 결성

조선해방 70돐, 조선로동당 창건 70돐경축 베네수엘라준비위원회결성식이 7일에 진행되었다.

결성식에는 주체사상연구 베네수엘라전국위원회 위원장 오마르 로베스는 결성식에서 다음과 같이 연설하였다.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주석께서 70년전 일제의 식민지통치로부터 조선을 해방하시고 혁명의 항도적력량인 조선로동당을 창건하신것은 획기적의의를 가지는 역사적사건들이었다.

김일성주석께서는 주체사상을 지도사상으로 하는 조선로동당을 창건하신 후 그 병도적역할을 높여 미래의 무적침공을 짓부시고 사회주의국가를 건설하시었다.

조선로동당창건 70돐 및 조선해방 70돐경축 브라질준비위원회가 6월 18일 썬 바울로에서 결성되었다.

준비위원회에는 브라질자유조국당, 김정은혁명도자회고 브라질위원회, 브라질주체사상연구센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편대성 브라질위원회, 브라질조선친선협회의 인사들이 참가되어있다.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브라질자유조국당 부위원장 로자니 마 캄보스가 선출되었다.

준비위원회는 8월 19일부터 10월 15일까지를 경축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에 백두산결세위원들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과 위대성기사를 출판보도물에 특집하며 업적 토론회, 사진전시회, 영화감상회 등 다채로운 정치문화행사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조선해방 70돐과 조선로동당 창건 70돐경축 스리랑카준비위원회가 6월 28일 콜롬보에서 결성되었다.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스리랑카인민조선친선협회 부위원장 프라디프 위세라트나세카라가, 부위원장으로 스리랑카교육국장 피. 엠. 파티라지 파한라감 마가, 서기장으로 아시아지역 주체사상연구소 이사이며 스리랑카자력갱생연구회 위원장인 더불유. 에이. 두민두외르디네가 선출되었다.

준비위원회는 8월 15일과 10월 10일에 즈음하여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는 토론회를 비롯한 정치문화행사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조선중앙통신】

